

# 한화그룹, 여수 아쿠아 플라넫 개관

국내 최대로 63 씨월드의 6배 ... 태양에너지 활용 생명유지 환경 조성

한화그룹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국내 최대의 아쿠아리움인 아쿠아 플라넫(Aqua Planet)을 5월4일 선보였다.

아쿠아 플라넫은 지상 4층 높이에 연면적 1만6400㎡, 6000톤급 수조를 갖춘 국내 최대의 아쿠아리움으로, 서울 63 씨월드(1000톤)의 6배, 서울 코엑스(2300톤)와 부산 아쿠아리움(3500톤)의 약 2-3배에 달한다.



박람회 행사 종료 후에도 남게 된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인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부합하는 친환경 아쿠아리움 설계로,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친환경 시설을 건물 옥상에 설치해 아쿠아 플라넫에 살고 있는 해양생물들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생명유지 장치를 통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

아쿠아 플라넫은 바다동물관과 생태관, 체험관 등 3개 관으로 구분해 운영하며 흰고래인 벨루가, 바이칼

물범, 남미물개, 해룡 등 280여종 3만3000여 마리의 해양생물들이 전시된다.

특히,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흰고래가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한화그룹은 관람객들에게 웃는 태양 에코백과 티셔츠를 나누어주고 행운의 솔라맨과 함께 하는 사진촬영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쿠아 플라넫은 한화건설에이 시공했고 5월3일 준공식을 가졌다.

아쿠아 플라넫은 물을 상징하는 아쿠아(Aqua)와 행성을 뜻하는 플라넫(Planet)의 합성어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며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04>